

도내 초등 늘봄학교에 숲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북자치도교육청, 서부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약
업무역량 교류·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 업무지원 등 담야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늘봄학교에 숲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25일 5층 회의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정철호 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남태현 원장)과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사회 기관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에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숲 교육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교류 및 자원 활용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 업무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우수강사 인력 양성 및 지원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희망학교에서는 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숲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5층 회의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서교육 가능한 사서교사 정원 확보하라”

전북교육연대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 전면 철회하고 독서교육 질적 성장 정책 펼쳐야”

전북교육청 “공립학교 사서교사 30여명 배정 상황에 따라 공무직 사서 배치 추진 불가피”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실현하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전북교육연대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서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독서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100여 명의 공무직 사서를 공립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말로는 독서교육, 문해력 교육, IB 교육을 외치면서, 정작 공립학교에 대규모로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행정직인 공무직 사서는 교수학습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정작 수업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인천, 대구, 광주교육청 등은 이미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방향을 공무직 사서에서 사서교사 정원 확보로 선회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독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강화, 사서교사 양성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서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



전북교육연대가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서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독서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작 전북교육청은 왜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서교사 총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42명을 충원하는데 이중 전북에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정원의 기간제 모집에 있어 사서교사는 제외돼 규정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7월 1일자로 67개교의 정원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다만, “전북 포함 전국 사서교사 양

성기관(인원)이 매우 저조해 현실성 있는 사서교사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실제 67개교에서 사서교사 채용 모집 결과 응시자 없음 또는 미자격자 응시로 9월 1일 현재까지 22명만 채용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직 사서 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2~3명 정도의 티오가 배정되는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우리 전북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천막농성 100일차’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사수”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유지 약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지났다.

25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난항 끝에 지난 8월 20일 단체교섭이 시작됐으나 협약 체결은 요원하다. 교섭 결과 공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2번째 교섭일이 3주나 밀린 오늘에 서야 재개됐다. 17개의 부서와 각각 1차 교섭을 하는데도 3~4개월이 걸리는데, 1차 만남으로는 모든 조항을 다룰 수도 없을 정도로 다수의 조항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조항이 3~4%에 불과하다는 전북교육청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 속도로는 서거석 교육감 임기 내에 협약을 맺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단체협약의 사각지대 놓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유지 약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100일째 벌이고 있다.

이게 되고, 행정업무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학교마다 갈등에 휩싸이며, 복무와 인사를 무기로 행해지는 교장의 갑질을 막을 근거를 잃게 됐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할 수 없는 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맺어진 업무경감 조항과 교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는 전북교육청의 기만적인 행위에 전북의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8~9급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MZ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젊은세대 직원들과 ‘거리 좁히기’

서 교육감, 소통의 시간 가져

유연·청렴한 공직문화 강화

서거석 교육감이 MZ세대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본청 8~9급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MZ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 교육감과 MZ세대 참석자들이 사전에 촬영한 셀카 영상 관람, 자기소개, 청렴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참석자들과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업무 및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의 주제로 깊이 있는 대

화를 나눴다.

이에 MZ세대 직원들은 투명한 소통,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서 교육감은 공직사회 내 유연한 소통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8급 직원은 “교육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자리를 통해 교육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이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소통의 시간은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MZ세대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조직의 변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영재학생 해외 진로·문화 체험 공유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참여 학생 대상 성과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25일 시청각실에서 영재학생 해외 진로·문화 체험 참여 학생 31명(초등 13명, 중등 18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영재학생 해외 진로·문화 체험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8박 10일간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AI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학이나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컴퓨터 관련 대학생들의 수업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문화 체험을 벗어나 조별활동을 통해 모둠별 사전 프로젝트 조사 및 발표 과정으로 운영됐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과학

관인 엑스포라토리움, 보잉박물관, 인텔 컴퓨터박물관, 워싱턴대학교,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방문을 통해 신기술의 동향은 물론, 대자연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도현(전주서중 3년) 학생은 “세계적 기업에 재직하는 회사원의 경험을 직접 들으니 신기했고,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을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의 원장은 “AI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과 문화를 직접 접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영재들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아이템 Value-up IR’ 행사 개최

롯데창업재단 주최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 도전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국경수)은 지난 2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아이템 Value-up 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업 예비 및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실전 투자 유치 발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롯데창업재단이 주최하는 ‘신격호 롯데 청년기업가대상’에 도전하기 위한 발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피드백을 받아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보완하고, 실제 투자 유치 상황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바다가이드(대표 이윤주), 맘미명당(대표 김강산), 에디플라(대표 최민석) 등은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국경수 단장은 “대학별 스타트업과 일반 창업기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창업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달성한 공공기관에 주어지는 것으로, 인증 자격은 3년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8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3년마다 주어지는 인증을 2021년과 2024년 연속으로 수상하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이번 인증은 전북교육청의 인력 양성 시스템과, 직원 인사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수련원

중·고교 교장 대상 수련캠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지난 23~24일 도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교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수련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행사는 1박2일 일정으로 집외이며, 세울타기, 국궁, 스포츠클라이밍 등 신체활동과,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소장의 ‘인공 지능 시대의 상상력과 활용법’ 미래교육 특강, ‘별마루 여행’, ‘월링명상’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주공립고 오홍화 교장은 “학생수련원은 학생들을 받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1박2일 동안 직접 수련생이 돼 집외이며, 국궁, 클라이밍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실동중 강신미 교장은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수련원은 자연 속에서 신체는 물론 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양원 원장은 “도내 교장(감) 선생님들이 직접 수련교육을 체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장(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